

2017 09 17 남부뉴저지 감리교회 7 대 비전

남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취임감사 예배

남부뉴저지 감리교회 7 대 비전

성경말씀: 잠언서 29:18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할렐루야!

잠언서 29 장 18 절 말씀이 King James 영어성경에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교회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없는 교회는 망합니다. 그러나 이 비전은 사람의 비전이 되면 안됩니다. 이 비전이 담임목사 한 사람의 비전이 되면 안됩니다.

이 비전은 세상에서 온 비전이 되면 안됩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 7 월 1 일자로 남부뉴저지 감리교회에 파송을 받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7 월과 8 월 2 달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이 교회를 향하신 비전이 무엇인지 간구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 교회를 향하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다 모아 봤더니 7 가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남부뉴저지 감리교회에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7 대 비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도하는 교회

둘째, 선교하는 교회

셋째, 찬양하는 교회

넷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하는 교회

다섯째, 크리스찬 문화를 이끄는 교회

여섯째, 사도행전 29 장을 쓰는 교회

그리고 일곱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고, 실천하는 교회

하나씩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남부뉴저지 감리교회 7대 비전 첫번째, 기도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 장 17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남부뉴저지 감리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 년 반 동안 따라 다니면서 예수님의 설교도 듣고, 병자를 고치는 것도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보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적이 없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적도 없고, 기적을 행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한가지 가르쳐 달라고 한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배워야 할 정도라면 우리들은 두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기도를 배워야 하는것이 마땅한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면 기도하는 집에 모인 사람들은 마땅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남부뉴저지 감리교회에 성도님들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영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천국을 이땅에 내려오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양육프로그램중에 하나로 매년 “기도스쿨”을 열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기도하는 집인 교회에서 기도가 생소하게 느껴진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스쿨을 통해서 저는 우리 남부뉴저지 감리교회에서 중보기도자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영적 만나와 시므온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며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를 했던 만나와 시므온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금식과 기도를 하는 영적 만나와 시므온의 세대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삼삼오오 성전에 모여서 중보기도 모임을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담임목사가 시켜서가 아니라 영적 만나와 시므온들이 중보기도 모임들을 자생적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2. 남부뉴저지 감리교회 7대 비전 두번째, 선교하는 교회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지상대사명, Great Commission 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 장 19 절 20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9.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첫째, Go to all nations 모든 민족에게 가서

둘째, make disciples 그 간곳에서 제자를 양육하고

셋째, baptize them 그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고

넷째, teach them to ovey 그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리고 다시 go to all nationa 그 교회에서 다시 모든 민족에게 가라.

교회에서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 간곳에서 제자를 양육하고, 그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또 다시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것입니다.

Go to all nations....모든 민족에게 가라....이것이 바로 세계선교입니다. 교회는 열방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계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지상대사명을 진정으로 지키지 않는것입니다. 제자를 양육하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까지는 하는데 모든 민족에게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주님의 선교명령인 Great Commission 을 이행하는 frontline 즉, 최전방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최종목적은 복음전파와 제자양육을 통한 교회개척입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그곳에서 최종목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다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갈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족속을 향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전략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그리스도께서 주신 지상대사명 앞에 서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지상대사명에 대해서 그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답변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됩니다.

“선교하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양육프로그램중의 하나로 “선교스쿨”을 열것입니다.

저는 우리 남부뉴저지 감리교회에서 천국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된 성도님들이 선교스쿨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향하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열방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 장 14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에 끝이 오리라”

지금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 될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디. 아주 빠른 속도로 천국복음이 열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목숨을 걸고 천국복음을 들고 마지막 질주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남부뉴저지 감리교회가 이 질주에 가장 맨 앞에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한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손에는 사랑을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안에 열방의 국기들이 휘날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둘중에 하나는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나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3. 남부뉴저지 감리교회 7대 비전 세번째, 찬양하는 교회

요한복음 4 장 23 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성전에서 레위인들의 직무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특별한것은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윗왕은 악기를 연주하는자 4,000 명과 노래하는 자를 288 명을 두었습니다.

솔로몬왕때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지성소에 놓고 제사장들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게 됩니다.

역대하 5 장 13 절 14 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13.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 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14.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교회에서 “여호와 앞에 서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찬양팀과 성가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가지는 찬양팀과 성가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바로 레위인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레위인으로서의 부르심은 바로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내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이 땅에 누군가를 찾고 계신다는 것일까요?

하늘나라에 천사들이 몇명입니까? 수천이요 수만이요. 그 숫자를 셀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얼마나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천사를 찾고 계신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이사야 43 장 21 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저는 우리 남부뉴저지 감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속에서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양육프로그램중의 하나로 매년 “예배자 스쿨”을 열것입니다.

예배자 스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울것입니다. 레위인의 세대를 일으켜 세울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되는 그런 삶. 귀가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듣고, 입술이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노래가 있는 사람.

그래서 두손을 들고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수 없는 삶.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부뉴저지 감리교회 성도님들은 어디에 계시든지, 나는 신자입니다 라는 말보다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4. 남부뉴저지 감리교회 7대 비전 네번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마태복음 28 장 20 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삶속에서 지키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그 말씀을 삶속에서 실제로 지키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그 사람이 실제로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양육프로그램중의 하나로 매년 “성경스쿨과 QT 스쿨”을 열것입니다.

성경스쿨과 QT 스쿨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incarnation, 성육신이 우리 남부뉴저지 감리교회 성도님들의 삶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그냥 어떤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서 성도님들의 삶속에 적용되는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원합니다.

저는 우리 남부뉴저지 감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매일 QT 를 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중심의 QT, 살아있는 QT, 그래서 삶이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남부뉴저지 감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기를 원합니다.

5. 남부뉴저지 감리교회 7 대 비전 다섯번째, 크리스찬 문화를 이끄는 교회

요한복음 17 장 16 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로마서 12 장 2 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안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크리스찬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면 되겠습니까?

“크리스찬 문화를 이끄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우리 남부뉴저지 감리교회에서 “다양한 문화 공연 과 문화집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음악, 무용, 미술, 연극 등...민지 않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크리스찬 문화를 접할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남부뉴저지 감리교회에서 말씀집회, 성령집회도 하지만 또한 문화집회도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 문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집회...말씀집회나 성령집회 처럼 교회 안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집회를 하기 원합니다.

6. 남부뉴저지 감리교회 7 대 비전 여섯번째, 사도행전 29 장을 쓰는 교회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사도행전 28 장 31 절은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 장은 성경의 다른 책들처럼 어떤 공식적이 끝맺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뒤집어서 말하면 사도행전은 28 장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 장에서 28 장까지는 사도행전 29 장을 위한 blueprint 입니다. 사도들의 행진은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바로 교회를 통해서 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2,000 년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운동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 장에서부터 28 장까지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남부뉴저지 감리교회에서도 똑같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부뉴저지 감리교회에 초대교회의 성령의 모든 은사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9 장을 쓰는 교회의 슬로건은 “Lord, do it again!” 입니다. 성령님을 초대하고 사도행전 1 장에서 28 장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남부뉴저지 감리교회에서 똑같이 기사와 이적과 기적을 역사하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9 장을 쓰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우리 남부뉴저지 교회에서 매년 “성령집회”를 열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목사님들, 예언자들, 치유자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열것입니다.

또한 매달 마지막 주일 저녁에 “마가의다락방 기도회”를 가질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남부뉴저지 감리교회가 성령의 부흥의 근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부흥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한인 이민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의 불씨를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7. 남부뉴저지 감리교회 7 대 비전 일곱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고, 실천하는 교회

마가복음 12 장 30 절에서 32 절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30.첫째는 이것이니....31.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2.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것.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지상대계명 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일서 4 장 16 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근원지는 하나님입니다. 사역의 가장 핵심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에 의해서 시작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안에서의 모든일은 사랑에서 흘러넘쳐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지금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장 부족한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더 사랑한다면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사람을 미워할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사람을 정죄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신앙생활의 그 마지막은 결국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 장 13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신부의 교회를 바라십니다. 저는 우리 남부뉴저지 감리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 장 12 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지므로 사람이 사람에게 환난을 주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이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남부뉴저지 감리교회는 사랑이 식지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은사들, 능력들은 반드시 사랑에 그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능력중심의 성령사역이나 말씀사역은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중심의 성령사역, 말씀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능력중심의 성령사역과 말씀사역은 사람을 다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서 사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바쳐 사랑하신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치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찬다면 정말 많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랑은 모든것은 감쌀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 어떤 허물도 덮을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 장 16 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 장 16 절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남부뉴저지 감리교회가 이 사랑의 사역을 한다면 사랑에 굶주린 많은 사람들이 올것입니다.

“목숨을 건 사랑의 사역” 저는 우리 남부뉴저지 감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역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건 사랑의 사역”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고, 실천하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매년 “생수의 강수양회”를 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 장 1 절 2 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1.또 내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차고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흘러넘친 사랑이 하나씩 둘씩 모여서 우리 남부뉴저지 감리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의 강을 만들것입니다.

이 남부뉴저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가로 올것입니다.

무거운 짐진사람들,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가로 와서 하나님의 그늘에 앉아 쉼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들을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것입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가슴이 찢어질듯 마음에 병이 걸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가로 와서 강가에 핀 하나님의 사랑의 꽃 향기를 맡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것입니다.

육신의 병이 있는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가로 와서 강가에 자란 하나님의 사랑의 나무에 피어나 잎사귀를 먹고 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앓은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자를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실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굶주린 사람들,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가로 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무에서 열린 실과를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사람들, 영적으로 갈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가로 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을 마시고 갈증이 시원하게 해소될 것입니다.

Conclusion

남부뉴저지 감리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7 대 비전을 들으셨습니다. 이 비전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초청합니다.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이들을 목사 혼자 할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 해서도 안되는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함께 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주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됩니다.

저는 이 7 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팀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협력하는 팀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9 월 9 일과 10 일 1 박 2 일동안 평화기도원에서 Leadership Retreat 을 갖고 이 7 대 비전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담임목사 한 사람의 비전이 아닌 우리의 비전, 공동체의 비전으로 함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우리 남부뉴저지 감리교회는 오늘 이후로 이 7 대비전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있네]